

믿고 찾을 수 있는 곳!

**한국생약협회 직영
국산한약재 상설매장**

고품질의 국산한약재만을 엄선,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TEL: (02)967-4984

발행인 겸 편집인 임연학
인쇄인 장옥환

발행소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1140-55
TEL: 967-8133 FAX: 965-0643

‘으뜸 생약인상’ 제정

국산한약재 고품질화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한국생약협회는 3월31일 제기동 소재 경동한방프라자 2층에서 제 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백2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는 농림부 임현언 사무관(채소특작과), 한약 도매협회 운영진 회장, 경동 약령시협회 박의진 회장, 서울시 한의사협회 이범룡 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임연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경기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생약농업환경도 그다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입개방화에 대응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와 생약농업 육성에 최우선을 두겠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의 긴밀한 협

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과 동시에 산하회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총회에서 통과된 협회 총 예산은 사무국과 상설매장을 합해 2억9천5백48만원. 인건비 감소로 지난해 2억5천1백만원 보다 다소 감축 편성됐다.

생약협회는 올 한해동안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 활성화 △사무국 행정업무의 효율화 △국내 생약생산기반 조성 △생산자단체로서의 협회조직과 기능강화 △국산한약재 품질관리 및 경쟁력 강화 △대내외적 교육·홍보강화 등을 기본 목표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기사3면>

우선 오는 5월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행사를 시작

로 △상반기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하계수련대회 및 세미나 개최 △내추대성 ‘만추당귀’ 품종육성 및 보급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갈 계획이다.

또 국산한약재 고품질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분기별 ‘으뜸 생약인상’을 제정, 수여함으로써 생산농민들에게 청정고품질 약재 생산을 독려키로 했다.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는 오는 11월중 개최하는 안이 일단 통과되긴 했으나 개최여부와 구체적 행사 내용·시기 등은 상황에 따라 결정키로 집행부에 위임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장 수인금(7천만원)을 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타안건으로 제기돼 논의결과 다수 찬성으로 수인금 공제안이 통과됐다.

협회장 수인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빚인 만큼 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협회내 기금이 거의 바닥나는 시점에서 수인금 7천만원까지 공제하고 나면 그야말로 남는게 없다”는 우려로 그 동안 찬반 논란이 무성했다.

<문정희>



▲ 이날 총회에서 통과된 협회 총예산은 사무국과 상설매장을 합해 2억9천5백48만원이다.

농산물 및 약용작물 관련규제 완화 추진

농산물 가공식품 및 약용작물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규제 개혁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농산물 가공식품 및 약용작물의 유통관련 규제개혁을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농산물 가공은 한국 식품개발연구원, 약용작물은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규제개혁위는 오는 5월 중순쯤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법 개정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용작물의 경우 한약재를 식·음료품 원료로 사용할 때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정된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제와 농민들이 생산한 한약재를 자유롭게 유통시키는 것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다.

이와 함께 잔류농약 및 중금속검사 방법의 개선과 한약재의 수급조절대상 품목 조정 등도 규제개혁 과제에 올라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이동필 전문위원은 “농산물 가공 및 한약재 판매와 관련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연구과제의 핵심”이라며 “바람직한 연구결과가 나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농가소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 면 안 내

- 99년 생약협회 주요사업계획 3면
- 재배·기술정보 4면
- 시세·유통정보 5면
- 사진으로 보는 제30회 정기총회
제30차 이사회 이모저모 6면

“더 이상 고품질의 상품은 없습니다.”

■ '99년 4월부터 예정이율이 인하되어 국내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오르지만 「생약인 단체보장보험」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



('98. 6. 30. 「생약인 단체보장보험」 협약체결 장면)

한국생약협회는 회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약협회 회원에게 드리는 혜택

- 전 연령 단일요율 적용으로 납입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저렴
- 협약체결을 통해 단체보험 개별가입이 가능
- 한국생약협회 회원의 필요보장급부로 설계

- 재해장해시 생존연금 최고 7억2천만원 지급
- 암진단시 고액의 암치료비 최고 4천만원 지급
- 암사망시 사망위로금 최고 2천만원 지급
- 재해사망시 최고 7천5백만원 지급
- 응급치료비 최고 15만원 지급 (교통사고 1회당 4일이상 입원시)
- 재해입원시 3일초과 1일당 20,000원 지급

- 만기생존시 기납입 주계약 보험료 환급으로 목돈마련 가능
- 한국생약협회는 교보생명에 재차 상품개발을 의뢰하여 회원들의 보장기간을 15년, 20년만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료예시

구분	(10년납, 월납기준)					
	남자			여자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10년만기	15년만기	20년만기
보험료	39,600	33,350	36,650	19,900	17,250	17,950